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기반 모색 - 루터와 테일러를 중심으로*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테일러의 '일상의 긍정'에 대한 기본 이해

III.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논거 모색

1. 일상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초점으로 하는 신앙론의 발전적 전개
2. 일상에 대한 창조론적 긍정과 이성중심적 전개
3. 일상의 긍정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가정과 노동
4. 세속 영역에 대한 신학적 긍정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0.07>

* 이 논문은 2018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ABSTRACT •

Exploration of Theological and Ethical Foundations for Affirmation of Everyday Life: Focusing on Luther and Taylor

Prof. Lee, Chang-Ho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Charles Taylor maintains that the Reformers such as Luther and Calvin contributed to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everyday life' in theological terms. In discussing divine self-disclosure and faith communities where divine self-revelation and acceptance of the revelation take place, the Reformers' teachings have been conducive to overcoming religious exclusiveness and reinforcing the possibility of embracing God's revelation and presence in the spheres of ordinary life. Taylor insists that Luther and Calvin offered a theological foundation where believers can regard their historical existence in the secular as the everyday basis of holiness. Endorsing Taylor's thesis basically, I aim to explore theological and ethical foundations for affirming the value of 'everyday life.' My inquiries in this paper are two-fold. First, I attempt to offer a systematic description of theological, philosophical and ethical foundations for such affirmation that are traced in the thoughts of Luther and Taylor. Major themes I will discuss include Taylor's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affirmation of everyday life, a form of belief stressing individual persons as the subjects of everyday life,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meaning of everyday life in terms of the doctrine of creation and reason-centeredness, family and labor as key spheres for the affirmation of everyday life, and theological justification of the secular realm. Second, I will make some theological and ethical suggestions, hoping that they contribute to honoring the sacred and the secular comprehensively and strengthening Korean churches' and their members' responsible practice and engagement in the sphere of everyday life.

Key words: Charles Taylor, Martin Luther, Everyday Life, Ordinary Labor,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I. 들어가는 말

한국 기독교 안팎에서 현재 교회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다양한 원인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뢰도 하락이 극명한 증후로 현실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층적 차원에서 혹은 근본적 신학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절실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뿌리 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유효한 개선의 대안을 내 놓아야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의 하락과 상실은 무엇보다도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 밖 영역에서 신뢰할 만한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 못 했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천적 윤리적 양태들을 양산해 온 탓이라는 진단은 타당하다.

이렇듯 교회 밖 영역의 구성원들에게 신뢰가 아닌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행동과 삶의 양태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타자와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삶과 실천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분명하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달리, 한국 교회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기적 신자로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공동체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신뢰는 기본적으로 관계 문제이기에 교회와 교회 밖 영역 사이의 관계성(혹은 성과 속의 관계성)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살필 때,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원론적 신앙이다. 성과 속을 구분하고 신(神)에 대한 거룩한 체험과 그에 대한 예전적 실천적 응답의 영역을 교회 안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이원론적이다. 한편으로 거룩한 영역으로서 교회에게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

회 밖 영역을 속되게 보거나 신의 체험과 거룩한 삶의 영위를 위해 교회에 비해 열등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신앙은 신자들이 교회 밖 삶의 현장들 곧 가정, 일터, 지역사회, 정치공동체 등의 현장들에서 적극적으로 성(聖)의 체험을 추구하거나 신자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지형을 본다면, 불행하게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앞의 것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의 균형의 결여이다. 기독교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시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한 분 하나님이다. 창조자와 구원자가 하나이시라는 신학적 진실에 근거해, 창조와 구원을 동일한 맥락에서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창조와 구원은 상호연관성 속에서 논구되어야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 교회의 신앙은 창조 보다 구원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비중을 두는 경향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창조와 구원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전인 보다 영혼에 치중하는 구원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론적 섭리를 거룩하고 여겨지는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국한시키고 교회 밖 세속 영역을 포함한 전체 창조의 지평을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원론적 섭리의 역사를 교회론적으로 제한하고 세속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배제할 때, 구원론적 섭리에 강한 책무 의식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자들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신앙과 삶의 자리를 신앙공동체인 교회로 '배타적으로' 설정할 여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하락을 중대한 증후로 포함하는 한국 교회의 위기의 근본적 신학적 원인에 대한 필자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어떻게 이원론적 신앙의 문제 그리고 창조와 구원

의 균형 결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성과 속에 대한 포괄적 시각을 갖추고 세속의 영역을 신학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며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론적 섭리에 충실하게 응답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또 공적 윤리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질문들에 대한 유효하고 의미 있는 응답으로서 루터(Martin Luther)와 테일러(Charles Taylor)를 주목하고자 한다. 캐나다 맥길 대학(McGill University)의 철학자 테일러는 루터와 칼뱅(Jean Calvin)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전통이 ‘일상’에 대한 신학적 긍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특수한 계시나 신비로운 임재 등의 신적 자기 계시의 방식, 신적 자기 계시와 그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으로서의 신앙공동체 등의 관점에서의 종교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평범한 삶의 시간과 영역 안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확장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인 것이다. 다시 말해, 테일러는 일상의 삶과 그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인간의 역사적 삶의 의미를 세속의 시공간으로 확장하여 거룩한 삶의 일상적 기반을 성과 속을 포괄하여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¹⁾ 테일러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루터와 테일러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그 신학적(혹은 철학적) 윤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테일러의 ‘일상의 긍정’에 대한 기본 이해 고찰로 시작하여, 일상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초점으로 하는 신앙론, 일상에 대한 창조론적 이성중심적 긍정, 일상의 긍정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가정과 노동, 세속 영역에 대한 신학적 긍정 등의 논

1) Charles Taylor,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서울: 새물결, 2015), 430-68.

점을 주로 다룰 것이다. 또한 신학적 윤리적 제안을 할 것인데, 이 제안을 통해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과 실천이 성과 속을 포괄적으로 존중하며 ‘일상의 영역’(혹은 세속 영역)에서도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I. 테일러의 ‘일상의 긍정’에 대한 기본 이해

테일러는 ‘일상적 삶’(혹은 ‘일상’)이라는 개념이 주로 “인간의 삶에서 생산 및 재생산과 관련된 여러 측면, 곧 삶에 필요한 사물을 만드는 노동 그리고 결혼과 가족을 포함한 성적 존재로서의 우리 삶”을 지시한다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정치사회적 실존과 공동체 형성의 목적이라고 밝힌 바로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는 목적의 관점에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은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과 그렇게 살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사는 것’으로 구성되는데, 테일러에 따르면, 일상적 삶은 후자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삶을 지속하고 갱신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포함된다.”²⁾ 전자의 관점에서 행복하고 훌륭한 삶 혹은 ‘좋은 삶’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의 기반 확보를 넘어서는 좀 더 고상한 삶의 양식을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테일러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 이러한 고상한 삶의 양식은 ‘이론적 관조’와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동’이라고 정리한다. 이론적 관조란 도덕적 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자연과 사물의 질서를 관조하는 등의 정신적 작용과 행위를 포함하며,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동이란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구성되는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 공공선 증진을 위한 공적 토론과 그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경제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의 가족적 결사가 진정한 폴리스

2) 위의 책, 423.

(polis)가 될 수 없다는 이유는 그것이 오직 협애한 목적만 위해 모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은 이런 토대 위에 좋은 삶과 연관된 일련의 활동을 구축한다. 예컨대 남성들은 도덕적으로 가장 탁월한 것에 대해 숙고하고, 사물의 질서에 대해 관조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선에 대해 함께 숙고하고, 법을 형성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결정하는 일이다.”³⁾

다만 이론적 관조와 정치사회적 참여가 좀 더 고상한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근원적 이유로서 ‘윤리적 위계’라는 관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테일러는 강조한다. 관조적 삶의 가치를 드높이는 철학자들은 기술적 활동과 그것을 통한 사물의 변화, 실험과 같은 과학적 행위를 통해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등에 거부감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경계하였다는 것이다. 시민적 참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긍정은 근대 이탈리아와 북유럽 사회에서 시민적 휴머니즘의 형태로 되살아났으며 개인과 가족의 생존에만 국한된 삶이란 공적 공동체를 위한 참여적 삶에 비해 열등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점 또한 테일러는 밝힌다. 특별히 시민의 공적 참여에 대한 가치 부여는 이른바 ‘명예 윤리’와 유사하다고 보는데, “명예나 영예를 향한 전사나 통치자의 삶은 오직 사는 데만 관심을 쏟는 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종종 소유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은 이렇게 보다 고상한 삶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테일러는 이러한 위계적 질서의 ‘역전’이 일상의 긍정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역전

3) 위의 책, 422-23.

4) 위의 책, 425.

은 ‘행복하고 훌륭한’ 삶이 관조나 시민적 참여와 같은 좀 더 고상하다고 여겨졌던 특별한 양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양식을 뒷받침한다고 믿었던 기본적 생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삶’(혹은 사는 것)을 통해서 영위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여기서 테일러는 베이컨(Francis Bacon)을 중요하게 인용하는데, 베이컨은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밝히고 설명하는 것에 우월적 가치를 부여했던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현실적 적용이 결여된 이론적 학문적 접근의 공허함을 지적한다.⁵⁾ “나는 어떤 이익과 자기과시 또는 살아가면서 힘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지식 자체를 위해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조차 사물의 적용보다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부르는) 만족이라는 잘못된 목표를 추구해왔다고 생각한다.”⁶⁾ 여기서 베이컨은 ‘유용하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외양만 그럴 듯한’ 지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식의 진위에 대한 척도로서 ‘기술적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목표는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되며 이를 목표로 삼지 않는 학문은 “도덕적 실패이자 박애 정신의 결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불가피하게 인식론적 실패이기도 하다.”⁷⁾ 또한 베이컨의 ‘역전적’ 입장은 가치의 재평가를 필연적으로 내포하는데, 이 재평가 안에서 특수한 기술을 통해 현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한 기술자가 세계의 질서를 관조하고 논하는 철학자 보다 학문과 역사 발전에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테일러는 일상의 긍정은 ‘사회적 평등화’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⁸⁾ 다시 말해,

5) 위의 책.

6) Valerius Terminus B. Farrington, *Francis Bacon* (New York: Lawrence and Wishart, 1962), 142.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26에서 재인용.

7)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26-27.

8) 위의 책, 427.

좋은 삶은 특수한 인간군이나 삶의 방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모든 인간이 형성해 가는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제 좋은 삶의 핵심은 오직 유한한 소수들만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행위 영역보다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속에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위계적 관점의 다른 주요 변종, 곧 무엇보다 시민적 삶에 기원을 둔 명예 윤리를 겨냥한 비판을 살펴본다면 이런 사회적 전복의 파급 범위를 한층 더 잘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계층화, 특히 귀족과 평민들 간의 구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비판이 사회적 변화의 추진력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일상적 삶의 새로운 고양을 통해서였다. 17세기 후반에 그러한 비판은 수용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삶의 이상을 표현하는 흔한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이상 속에서는 냉정하고 규율 잡힌 생산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명예의 추구는 까다롭고 통제되지 않은 방종, 삶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을 불필요하게 위협에 빠트리는 것으로 비난받았다. 시민적 태도civility[이는 보통 '정중함'을 의미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시민적 삶의 자세나 태도, 시민적 기풍, 시민의식 등을 가리킨다]의 새로운 모델은 상업과 소유의 삶이 유례없이 긍정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18세기에 등장했다.9)

명예 윤리에 대한 비판, '일상의 삶의 새로운 고양', '시민적 태도의 새로운 모델' 등의 도덕적 지향과 문화적 에토스의 변화는 '평등의 이상과 보편적 권리의식, 노동 윤리, 성애와 가족의 찬양'으로 이어지며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이라는 근대적 정체성을 강화하여 "인간을 생산자로, 다시 말해 최고의 존엄성을 노동에서 그리고 삶을 위해 자연을 변형시키는 행위에서 발견하는 존재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 테일러의 인식인 것이다.10)

9) 위의 책, 428-29.

다만 윤리적 위계질서의 역전이 일상의 긍정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지평의 확장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도 이 ‘역전’이 고전적 의미에서 행복하고 훌륭한 삶의 영역 곧 ‘이론적 관조’와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동’의 영역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하겠다. 확장된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조와 공적 참여 역시 긍정되어야 할 일상적 삶의 면모인 것이다.

III.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논거 모색

1. 일상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초점으로 하는 신앙론의 발전적 전개

1) 종교개혁의 신앙에 대한 개인주의적 해석의 강화

루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종교개혁은 중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의 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저항의 결실은 세속화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¹¹⁾ 이 주장에서 세속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세의 강고한 교권주의에 의해 개인의 신앙이 압도당하던 현실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성스러움의 대상과 신앙의 방식의 선택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표현해 본다면, 선택된 종교, 탈전통적 신앙, 주관적 믿음, 내적 종교 등이다. 중세 기독교의 종교적 지형에서 신앙은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로서의 교회(혹은 교회의 권위체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인 셈이다. 그런데 종교적 신앙의 개시와 전개가 개인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 전환이 점증되면서, 종교 혹은 제도로서의 종교의 영향력은 비례적으로 점점 더

10) 위의 책, 429-30.

11) 최현중, “세속화,” 김성건 외, 『21세기 종교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2013), 87.

약화되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결정의 여지는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을 좌우하던 교권적 질서는 일종의 객관적 믿음을 전제한다. 교리라든가 교회법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신념과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매개하는 종교의 공적 기반을 수용함으로써 종교적 신앙이 주어진다든가 의미에서 객관적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의 공적 기반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 안에서 고유한 전통이 형성될 때 더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객관적 기반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 그리고 교권적 권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객관적 믿음보다는 주관적 믿음이 강조되고 그리하여 신앙이 탈권위주의와 개인주의의 경향성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주관성과 개인성에 대한 강조는 루터의 복음과 영적 정부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루터에 따르면,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율법은 규범적으로 또 법적으로 시민적 공적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복음은 인간 삶의 외적(혹은 공적) 기반에 관계하지 않고 개인의 내면(혹은 영혼)의 문제 곧 하나님과의 사귄이나 구원의 문제를 관장한다. 또한 세속 정부와 대비되는 영역으로서 영적 정부의 통치자인 그리스도는 개별 영혼을 관장한다고 루터는 강조한다. 개인의 고유한 신앙의 영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비롯한 다른 어떤 권력도 개인의 신앙에 개입하거나 주권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인 것이다.

이렇듯 루터의 종교개혁이후 개신교회는 교리체계와 주관적 믿음 사이의 간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종교성의 내적 지향에 주목한다. 버거(Peter L. Berger)는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종교적 실재를 우주와 역사라

12) 위의 논문, 87-88.

는 거시적 지평에서 개인의 내적 의식이라는 미시적 지평으로 위치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종교적 실재들은 인간의 의식에 외재하는 사실성의 준거 틀에서 그 실재들을 인간의 의식 내부에 자리 잡게 해주는 준거 틀로 점점 ‘전위’(translation)되어간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리적 자연의 외적 세계 안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되지 않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의 의식 내부에서 일어난 실존적 혹은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위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종교가 준거로 삼는 궁극적 참실재(realissimum)는 코스모스나 역사로부터 인간의 의식으로 변위(transposition)된다.”¹³⁾ 종교개혁으로 강화된 신앙의 개인주의적 경향, 혹은 버거의 용어로 개별 인간의 내적 의식으로의 ‘전위’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와 공적 권위의 약화를 내포하며 신앙의 영역이 특수하게 구별된 종교적 시공간을 넘어서 사적 개인들이 생존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확장된 영역에서 그 개인들은 자율적 존재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 삶의 토대를 일상화한다.¹⁴⁾

2) 일상의 긍정을 위한 테일러의 개인주의적 구원론 논의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신학적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보면서, 테일러는 일상에 대한 긍정을 위한 신학적 논거의 핵심은 가톨릭적 ‘중재’의 거부라고 주장한다. 이 거부는 신적 현존 혹은 성스러움에 접근하고 또 획득하기 위해 중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가톨릭적 이해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해는 신에 대하여 상대적으

13)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75), 183.

14) 이창호, “루터와 ‘일상의 신학’ 모색,” 『성암사상연구』 제13집(2016), 83-84.

로 더 큰 공적을 쌓아 신과 성스러움에 더 가까이 있는 신자들이 은총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회론적 구조를 본질적인 것으로 강조한다.¹⁵⁾

테일러에 따르면, 이러한 중재의 거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원론적 함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이 거부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 곧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원리와 직결되어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신념은 구원을 위해 인간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인식 곧 인간은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그 어떤 유의미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내포한다고 테일러는 강조한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구원 행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산물이라는 두 가지 사실 모두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이런 선물을 얻거나 초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다. 종교개혁의 신학 논리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참여, 곧 믿음조차 하느님의 산물이었다.”¹⁶⁾

신적 현존과 성스러움의 체험을 위한 교회의 중재적 기능의 폐기는 신의 현존과 성스러움에의 접근은 이제 종교적 권위의 매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 신자들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공적 교회에 의한 중재를 거부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 인간이 수행하고 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신념 뿐 아니라 이제 구원과 신앙의 개시와 전개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자발적 헌신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신학적 진실을 내포한다. 테일러는 이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중세적 틀 안에서 개별 신자

15)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30.

16) 위의 책, 431-32.

는 구원의 여정에서 교회라는 배에 승선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여정을 진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개시할 수 없기에 그 배에 승선할 수밖에 없는 여행객에 지나지 않는다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삼는 개신교 신앙은 그러한 여정과 여행객의 가능성을 엄격하게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톨릭적 의미의 배는 전혀 없으며, 인간을 구원을 향해 실어 나르는 어떤 공동의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신앙인들 각자는 자신의 배를 자기 힘으로 몰아야 한다.”¹⁷⁾

3) ‘일상의 긍정’ 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함의 진술

신앙의 개시와 전개가 공적 권위와 체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주관적 응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개인주의적 전환의 핵심 요인이 종교개혁이라는 평가는 주목할 만한데, 신앙과 성(聖)의 체험의 근본 토대를 개별 신자에게 둬으로써 정체성의 관점에서 공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개인으로의 초점 변화가 이루어지며 또 영역의 관점에서 개인들이 삶의 자리로 두고 있는 일상의 영역에 대한 긍정(혹은 신학적 의미 부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후자의 관점에서의 변화를 세속화의 중요한 양상이라고 평가한 것은 타당하며, 여기서 세속화란 일상의 영역에서 성의 의미 혹은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테일러 역시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근거로서 신앙의 개인주의적 전환, 특히 구원론적 관점에서의 전환을 강조함을 보았다. 개인은 스스로 구원의 길에 접근할 수 없고 반드시 공적 교회의 중재에 힘입어야 한다는 중세적 패러다임의 폐기를 루터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구원론의 핵심으로 간파하면서, 이제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선택과 헌신을

17) 위의 책, 435.

강조함으로써 구원론적 논의를 공적 교회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킨다. 여기서도 역시 일상의 긍정의 중요한 기반은 개별 신자들의 주체성과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일상의 시공간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임을 알 수 있다.

2. 일상에 대한 창조론적 긍정과 이성중심적 전개

1) 루터의 '창조의 질서'론과 이성중심적 논증

루터는 어거스틴(St. Augustine)의 전통에서 창조를 긍정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세계 안의 존재들은 선하다는 인식인 것이다. 창조와 섭리를 연결하면서 루터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드러나며 또 그 세계를 통해 섭리를 구현해 가신다는 신념을 견지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 계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뜻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다. 이것이 이른바 '창조의 질서' 개념의 기본적인 신학적 근거이다. 루터의 '창조의 질서'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심화된 형태로 전개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이 개념은 창조를 통해 신적 존재와 규범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관념을 내포할 뿐 아니라 인류의 개인적 공동체적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 충족을 위한 창조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시는 하나님 관념도 중요하게 포함한다. 창조의 질서는 창조로부터 이미 존재한 실체로서,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실존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적 맥락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다.¹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사회적 기능들'(stations)을 창조의 지평에서 이미 세워 주셨다는 것이

18) Luther, *Luther's Works* 46, ed. by Jaroslav Jan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68), 246-48.

다.¹⁹⁾

루터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해석과 적용은 그의 이성(理性)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논구할 필요가 있다. 구원에 필수적인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성은 그야말로 무능하다. 다시 말해, 인간 이성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통한 계시 인식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일말의 효용성도 찾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가 이성의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시적 인식에 있어서는 무능하지만, 사회적 삶에서 이성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 정치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에 뼈대가 되는 법적 제도적 체제와 질서를 구축하며 실제적으로 그러한 체제와 질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성은 필수불가결한 척도이며 작동 원리가 된다고 강조한다. “재판관이나 행정책임자들은 현명하고 경건해야 하며 이성에 따라 정의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그에 따라 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²⁰⁾ 이런 맥락에서 일상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생존과 성숙을 위해 이성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다. 특별히 정치사회적 삶의 척도로서의 이성은 일상적 영역에서의 정치사회적 판단과 행위와 제도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지위를 확보한다. “[하나님은] 자연적 이성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이성을 토대로 시민적 삶을 규율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세

19) Luther, *Luther's Works* 13, ed. by Jaroslav Jan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6), 368. 루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회적 기능(혹은 영역)을 상정하는데, 가정, 국가, 교회 등이다. 가정은 삶의 경제적 기반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이며 국가는 다른 영역들이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질서와 정의의 기반을 제공하는 책무를 맡는 정치적 정부를 가리킨다. 교회는 개별 영혼을 다스리는 영적 정부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크게 보아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되는 교회론적 체제를 의미한다. Martin J. Heineken, “Luther and the Orders of Creation in Relation to a Doctrine of Work and Vocation,” *The Lutheran Quarterly* 4/4(1952), 400-401.

20) Martin Luther, *WA* 19, 637. George W. Forell, “Luther’s Conception of ‘Natural Orders,’” *Lutheran Church Quarterly* 18 (1945), 170-71에서 재인용.

계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²¹⁾

그렇다면 성서로 대표되는 특별 계시는 창조의 질서가 작동하는 정치 사회적 삶을 구축하고 또 운영해 가는 데 있어 그 어떤 규범적 사회적 의미나 효용이 없는 것인가? 루터는 전적으로 그 의미나 효용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성은 ‘법들 중의 법’ 혹은 가장 중요한 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자체로 완전하며 전적으로 자기충족적인 법적 규범적 기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루터는 이성의 사회적 작용에 있어서 성서 계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성의 오류를 교정하고 한계를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보완적 기능과 지위를 허용하는 듯 보인다. 이렇듯 성서 계시가 이성의 사회적 기능을 보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두지만, 루터는 이성에 일정 정도 자율적(혹은 독립적) 지위를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성에 대한 이해를 ‘창조의 질서’론의 맥락에서 평가할 때, 루터의 이성에 대한 창조신학적 정당화를 탐지할 수 있으며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생존의 자리로 삼고 있는 세속 영역에 대한 보편적 긍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²²⁾

2) 테일러의 ‘합리적 기독교’ 논의

테일러는 로크(John Locke)의 이성중심적 이신론적 신앙 이해를 중심으로 ‘합리적 기독교’론을 전개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로크는 이성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시하며 자연이 드러내는 법칙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보존’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타자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피해나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자기 자신의

21) Luther, *WA* 43, 106. George W. Forell, “Luther’s Conception of ‘Natural Orders,’” 171에서 재인용.

22) 이창호, “루터와 ‘일상의 신학’ 모색,” 84-85.

생명 뿐 아니라 타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존중의 정신 안에서 최소한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학적인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존해야 하며 고의로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되며] 따라서 비슷한 이유로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가능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낸다고 테일러는 풀이한다.²³⁾ 또한 로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의미를 신적 설계와 의도의 관점에서 좀 더 심화된 형태로 탐색하면서 이성이 지시하는 ‘생명의 보존’ 법칙에 대해 논한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유하며,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강한 자기보존 욕구를 심어주셨으며, 하느님의 의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상에 먹고, 입고, 기타 생필품으로 쓰기에 적합한 것을 제공해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삶을 영위하고 일정 기간 동안 땅 위에 거주해야 하며, 그토록 흥미롭고 훌륭한 하느님의 작품을 자신의 태만함이나 필수품의 부족 때문에 금방 다시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유지하려는 욕구, 강력한 욕구는 하느님이 몸소 인간에게 행위 원칙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하느님의 목소리인 이성인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이런 자연적 성향을 추구하면서 창조자의 의지를 따르고 있음을 인간에게 가르치고 납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²⁴⁾

23)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77.

24) 로크, 『통치론』 I, 86.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78에서 재인용.

여기서 테일러는 인간의 생명 보존 본능을 하나님의 창조 차원의 설계에 의한 것이라는 로크의 생각으로부터 일상의 긍정, 특히 청교도적인 일상에 대한 긍정의 중요한 단초를 탐색한다. 먼저 자기 보존을 위한 생존의 기반 확보를 위한 노동(혹은 행위)에 존엄한 가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동은 ‘유용한 일’이며 인간은 이를 위해 지적인 역량 뿐 아니라 정서적 의지적 역량도 쏟아 부어야 하며, 이를 청교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으로 여겼다는 점을 테일러는 지적한다.²⁵⁾ 또한 생존의 기반을 위한 개인의 노동은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공공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교도 신앙은 소명은 개인적 삶을 보존하거나 윤택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인류 전체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²⁶⁾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별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 주어지는 ‘개선’의 명령 곧 삶을 개선하라고 창조자가 이성을 통해 주시는 명령은 개인의 ‘편의’ 증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공동체와 인류 전체의 공공선 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²⁷⁾

로크에 따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 특별히 생존의 본능을 위해 일하고 더 나아가 공공선을 위해 열심히 또 효과적으로 일하라는 신적 요구에 부응하는 삶이 ‘합리적’인 삶이라고 로크는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로크의 ‘합리성’ 이해의 중요한 내용을 탐지할 수

25)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77-78.

26) 위의 책, 479.

27) 여기서 ‘명령’은 의무론적 차원 뿐 아니라 목적론적 차원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신적 명령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지향하게 되는 선(혹은 가치)에 대한 인식과 긍정을 중요하게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선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향과 이성에 의한 판별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점에 관한 심화된 논의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William Schweiker, “Radical Interpretation and Moral Responsibility: A Proposal for Theological Ethics,” *The Journal of Religion* 73/4(1993), 613-637.

있다. 던(John Dunn)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의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인간은 자연의 법칙(=이성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한에서 이성적이다. 두 번째 의미로 이 용어는 지식과 반성 능력을 사용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도덕적·지적인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따라서 이성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들을 인식하고 그 요구들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합리성은 이성적(혹은 지적) 차원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²⁹⁾

이런 맥락에서 로크의 기독교는 합리적 기독교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신 인식과 신적 요구에 충실한 삶의 토대가 이성이라는 점을 테일러는 강조한다. 이성에 충실하며 합리성을 구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충실하게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를 ‘합리성’의 관점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시도는 로크의 중요한 전환 기적 시도라고 할 것이다. “정념과 맹목적 편견 그리고 경솔한 관습에서 이성으로 격상하는 것은 두 가지 상관된 변화를 포함했다. 곧 그것은 우리의 생산적 삶에 질서와 존엄성을 부여하며, 또한 우리가 이기주의와 파괴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준다.”³⁰⁾

테일러에 따르면, 로크는 ‘생산적 삶에 질서와 존엄성’을 부여하고 파괴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타적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양하는 이성에 입각한 삶을 ‘도구적 이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는데,

28) John Dunn, *John Locke*, 254.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81에서 재인용.

29)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81.

30) 위의 책, 488.

이성이 '도구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은 그 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성찰하고 또 그것에 부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혹은 설계) 구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도구적 이성'론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과 소명의 실천을 이성중심적으로 해명한다는 점에서 루터와 칼뱅으로 대표되는 정통 종교개혁 신학과 일정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이성에 고상한 지위를 설정하고 이성을 통한 자연적 '선의 질서' 인식, 이성의 최고 표현으로서의 관조와 지복직관 등을 강조한 실체론적 이성 이해를 견지한 신학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종교개혁과 가까이 선다. 로크와 종교개혁 신학에서 이성의 본성은 실체적 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이다.³¹⁾

실천적인 문제에서는 도구적이며, 이론적인 문제에서는 신중하고 거리를 둔 자세로 우리 관념과 관념들의 연합을 수학적인 연역과 경험적인 개연성에 따라 검사하는 합리성이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동물처럼 맹목적 본능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산을 통해 우리는 전체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동물과는 달리 이런 전체와 전체를 인도하는 최고의 목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 올라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³²⁾

이런 맥락에서 로크의 합리적(혹은 이성적) 기독교는 하나님 신앙과 소명 구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는 "우주의 무생물과 이성적인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안된, 우주의 설계자에게 적합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31) 위의 책, 488-89.

32) 위의 책, 490.

.”³³⁾ 설계자로서 신은 피조물 인간이 이성을 통해 그 설계를 인식하고 또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는데, 이러한 신적 섭리는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설계자의 지혜는 특수한 계시의 혜택을 입은 이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이성이라는 공동의 기반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인류는 개별적 차원에서 또 공동체적 차원에서 신의 설계에 내포된 생명 창출과 존중 그리고 존중의 의도를 전 삶의 영역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3) ‘일상의 긍정’ 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함의 진술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 이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앞에서 본 대로, 루터에게 이성은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간들이 구성하는 공적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성은 필수적인데, 정치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뼈대 구축에 있어서 이성은 규범적인 척도와 사회적 작용의 근거로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루터의 이해이다. 루터가 이성의 사회적 작용과 그것을 통한 정치사회 공동체의 구성과 전개를 창조 신학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서술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이성의 의미와 작용을 창조신학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루터는 신자와 비신자가 공히 생존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영역 혹은 일상의 영역에 대해 신학적으로 보편적 긍정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존 본능에 충실하여 생존을 위해 노동을 수행하고 또 개인의 생명 뿐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노동의 의미를 공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신이 인간에게

33) 위의 책.

부여한 질서 혹은 신의 설계라고 인식한다는 점, 이러한 신적 질서를 파악하고 또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차지하는 근본적 지위를 강조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로크의 ‘합리적 기독교’론을 논구하는 테일러는 자신의 ‘일상의 긍정’론에서 이성과 창조의 신적 계획과 같은 개념들을 핵심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 생존을 위한 일상의 노동과 그것의 공공적 의미에 대한 긍정을 신적 계획(혹은 질서)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그러한 ‘긍정’의 현실화를 위한 이성의 도구적 의미를 부각함으로써 테일러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신자와 비신자를 포괄하는 일상의 긍정을 위한 보편적인 신학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3. 일상의 긍정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가정과 노동

1) 루터의 결혼과 가정 이해와 만인제사장론

(1) 세속 질서로서의 가정에 대한 창조신학적 긍정

루터는 결혼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본다. 그러하기에 결혼은 “자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일이 되며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또 아내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조의 맥락에서 결혼의 본질을 논하는 루터는 어거스틴의 전통에서 서서 출산, 성적 욕망의 해소 등을 결혼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성사(聖事)로 보는 가톨릭적 이해를 거부함으로써, 어거스틴과 중요하게 갈라선다. 루터는 혼례 성사 시 결혼의 지속성을 확증하는 성례전적 징표가 주어진다는 생각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곧 결혼의 성사성(聖事性) 거부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성사의 본성으로서의 ‘영속성’ 거부에 있다.

결혼을 은혜의 주된 수단으로서의 성사로 보지 않음으로써 구원론적

지평에서 결혼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논하는 가톨릭의 전형적 이해에 저항하면서 루터는 자신의 개혁적 입장을 심화된 형태로 전개해 가는데, 특별히 루터는 결혼을 ‘세속의 일로 봄으로써 결혼을 구속의 질서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넘어선다. “결혼의 제도(Estate)”에서 루터는 당시 교회법이 규정한 결혼의 장애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 특별히 다섯 번째 요소가 루터의 개혁에 중요하다. 교회법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치명적인 장애 요소로 보고 이 둘 사이의 결혼을 엄금하지만, 루터는 교회법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허용은 결혼의 본성에 대한 루터의 전향적 이해에 근거하는데, 그는 결혼의 본성을 세속적인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 장애 요소 곧 ‘불신’ 조항에 반박하면서, 루터는 “결혼은 다른 세상적 일들과 같이 외적 육체적 일임을 기억하라.”고 주장한다.³⁴⁾

결혼을 창조신학적 맥락에서 논하고 또 그 세속적 본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적 의미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의 성사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결혼을 시원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의미에서 결혼의 신적 기원을 부정하는 것을 아니라는 말이다. 여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것이다. 다만 결혼은 구속의 질서에만 배타적으로 매여 있지 않고 그 본성에 있어 세속의 질서(혹은 창조의 질서)에도 속하는 것이기에 신자들은 비신자들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³⁵⁾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결혼을 허용하는 루터는 신자들 사이의 결혼 곧 기독교 결혼에 대해서도 논한다. 기본적으로 결혼과 가정은 세속 질서(혹

34) Luther, *Luther's Works* 45, ed. by Jaroslav Jan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68), 25.

35) 이창호, “종교개혁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루터와 칼뱅의 남녀관계성과 결혼 및 성적 결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9집(2017), 171-76.

은 세속 정부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지만, 신자들의 결혼과 그들의 가정은 영적(혹은 신학적) 의미와 목적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기쁨 부어 세우신 것이기에 그러한 신적 연원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또 작품으로 존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셨고 남편과 아내를 함께 부르셨고 자녀를 낳고 키우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³⁶⁾

루터에 따르면, 결혼과 가정은 신자들의 기독교윤리 실천을 위한 핵심적인 삶의 자리이다. 하나님은 기저귀를 빨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으신다는 루터의 말을 생각해 보라. 루터는 이 아버지의 행위를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 수행의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루터는 이 행위를 참된 기독교 신앙의 실천으로 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포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다.”³⁷⁾ 여기서 루터는 세속적 본성을 중요하게 내포하는 결혼과 가정의 삶에 기독교적 혹은 기독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세속 영역을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보지 않고 ‘성(聖)’의 의미를 통전적으로 간직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일상에 대한 신학적 긍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루터의 만인제사장론과 노동의 소명적 이해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을 탐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다. 여기서 루터는 로마교회의 교회론적 리더십과 구조에 대한 위계적 이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36) Luther, *Luther's Works* 45, 38.

37) Scott Hendrix, “Luther on Marriage,” *Lutheran Quarterly*, ns 14 no 3(Aut 2000), 342.

전개한다. 특별히 루터는 로마 교회와 교회의 권위적 주체들이 세 개의 강고한 담을 쌓아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존·강화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세 개의 담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영적 영역의 우위성 논지이다. 영적 영역은 그 권위에 있어서 세속 영역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세속 영역에 속한 권위 주체들이 영적 영역에 속한 지도자나 과업들에 반대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경해석의 권한에 대한 논지이다. 성경해석의 권한은 오직 교황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교황이 아닌 다른 주체가 성경을 해석하여 교회와 교황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의회의 비판적 기능에 대한 것이다. 공의회의 소집권한 역시 오직 교황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의회가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³⁸⁾

특별히 루터는 성과 속을 엄격하게 가르는 로마교회의 이분법적 계급론에 강하게 저항한다. 당시 로마교회는 영적 계급과 세속 계급을 나누고 전자의 후자에 대한 계급적 우월성을 결정론적으로 강조하는데, 전자는 교황, 주교, 수도사 등이 그리고 후자에는 제후, 영주, 농민 등이 속한다. 세속 계급은 영적 계급에 운명적으로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계급의 계급적 우위성은 영속적이며 필연적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계급적 인식과 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루터는 어떤 계급에 속하든, 모든 신자는 영적 계급에 속하며 우열을 매길 수 없다고 역설한다.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의 신학적 논거는 크게 보아 공적 기반과 사적 기반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공적 과정은 세례이다. 세례를 통과하면서 신자

38) 마틴 루터, 지원용 역,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감금, 크리스찬의 자유』 (서울: 컨콜디아사, 1993), 28-46.

는 공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공적 기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좀 더 근본적으로 사적 기반으로서의 개별 신자의 ‘신앙’을 신학적 근거로서 강조한다. 세례와 더불어, 개별 신자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 만인제사장론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는 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루터의 문장들을 옮겨본다. “신앙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 신앙만이 참된 제사장적인 직임이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젊은이건 노인이건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건 여자건 지식인이건 무식자건 간에 제사장이며 모든 여인들은 여사제이다. 신앙이 다르지 않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³⁹⁾ 또한 루터는 “이제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신앙이 제사장직을 가져[오며] 신앙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 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역설한다.⁴⁰⁾ 이로써 보건대, 개별 신자의 신앙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라 사적 기반과 세례라는 공적 기반을 포괄하는 신학적 근거를 자신의 만인제사장론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¹⁾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신자가 되고 세례를 통하여 제사장됨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부여 받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내포된 신적 사랑은 한 치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편적 사랑의 빛에서 신앙과 세례를 통해 신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모든 이들은 그 가치에 있어 동등하며 이들 사이에 그 어떤 위계적 차이나 계급 설정은 있을 수 없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수용하고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동등

39) Martin Luther, *WA* 6, 370, 24-28. 정홍렬, “루터의 만인제사장직,” ACTS 『신학과 선교』 제9집(2005), 181에서 재인용.

40) Martin Luther, *WA* 12, 307, 22. 정홍렬, “루터의 만인제사장직,” 181에서 재인용.

41) 정홍렬, “루터의 만인제사장직,” 181-82.

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의 구현을 그 본래적 목적으로 삼는 사명 실천에 있어서도 모든 직업과 일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 다시 말해, 신앙의 공동체 뿐 아니라 그 공동체 밖 세속의 영역에서 모든 신자들이 수행하는 노동, 과업, 직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책무들은 거룩한 소명이 되는데, 그 소명의 실천이 사랑의 계명 구현을 지향하며 신앙공동체와 세속의 공적 공동체들 안에서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테일러의 ‘성(聖)’의 확장으로서의 가정과 노동 이해

앞에서 본 대로, 테일러의 ‘일상의 긍정’을 위한 핵심적인 신학적 논거 중 하나는 가톨릭적 ‘중재’론에 대한 거부이다. 특별히 테일러는 종교개혁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성’ 혹은 성스러움에 대한 가톨릭의 이해 곧 성에 접근하고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 교회의 중재가 필수적이라는 이해를 거부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이러한 거부는 가톨릭 교회가 중재의 권위적 주체로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를 어떤 종교적 계기에 구속시켰다는 문제의식을 중요하게 내포한다. 미사와 같은 예전적 공간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인간·주도적 종교 행위에 신적 현존과 역사를 제한적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이다. 테일러는 종교개혁의 시각에서 이를 하나님의 “무제한적 절대성에 족쇄를 채우는 오만한 시도”로 일컫는다.⁴²⁾

종교개혁이 가톨릭적 중재를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론적 임재와 역사를 특수한 종교적 시공간과 행위에 ‘제한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비평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 테일러의 평가이다. “미사

42)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34.

와 함께 중세 가톨릭 교리에서 신성함에 대한 모든 개념, 곧 하느님의 권능이 보다 강렬하게 나타나고 인간이 하느님의 권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 또는 행위가 있다는 개념 역시 사라진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특히 칼뱅주의) 교회들이 성지 순례, 성모 숭배, 성지 방문, 전통적인 가톨릭 의식儀式과 경건함을 보여 주는 거대한 파노라마 같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신성함이라는 개념과 함께 교회를 신성함이 머무는 장소이자 매개체로 보는 중세 가톨릭의 개념 또한 자취를 감추었다. 그 결과 이제 교회가 맡았던 중심적인 중재 역할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⁴³⁾

가톨릭적 중재의 거부는 교회라는 특수한 종교적 공간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삶의 영역들에서도 그러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내포한다. 이전에 ‘속’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삶의 영역과 행위들이 이제는 속됨의 족쇄를 벗고 좀 더 고상한 의미 곧 ‘성’에 연관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노동에 대한 소명론적 해석에 있어서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중세 가톨릭의 세계에서 수도사와 수녀 그리고 성직자는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종교적 영역에서 금욕하고 기도하며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적 현존과 성스러움에 더 가까이 위치하며, 세속의 영역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비해 좀 더 고상하다고 여겨졌고 세속에 속한 평신도들은 ‘성’에 속한 좀 더 고상한 소명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 노동(혹은 소명)의 관점에서의 위계가 있다. 세속의 영역에서의 평신도들의 삶, 특별히 그들의 노동과 가족에의 헌신은 영적인 관점에서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⁴⁴⁾

43) 위의 책, 432-33.

44) 위의 책, 433-34.

이러한 위계에 대한 종교개혁의 거부는 성직자나 수도사의 특별한 영적 지위에 대한 거부이며, 이는 만인제사장론 곧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적 신념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성과 속의 엄격한 구분은 허물어지며 이 둘이 한 데 섞여 공존하는 새로운 삶의 시공간의 가능성을 창출한다. 교회나 수도원과 같은 특수하게 종교적인 영역은 성스러운 반면 노동과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삶의 영역을 불경하다는 중세적 이원론이 무력화되는 지점인 것이다. 중세 가톨릭이 “수도사적 삶이라는 제도는 생산적 노동과 가족생활의 정신적 지위를 모독하고, 그것들을 정신적 미성숙의 영역으로 낙인찍는 것으로 [여겼다면],” 종교개혁은 수도사적 삶에 부여되었던 특수한 의미를 철회하고, 평신도들이 일구어가는 일상의 영역을 신적 목적이 구현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핵심적 자리로 긍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테일러의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테일러는 루터가 수도사의 길을 떠나 전직 수녀와 결혼함으로써 이러한 종교개혁적 전환을 스스로 구현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⁴⁵⁾

테일러는 금욕과 독신을 보다 고상한 것으로 보는 중세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삶의 전 영역, 특히 노동의 현장과 결혼 및 가정생활에서 ‘기독교적 존재의 충만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점에서 종교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여기서 일상의 삶에 대한 긍정은 다른 아닌 ‘삶의 신성화’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세속의 영역과 그 영역 안에서 일구어가는 일상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과 의미 부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⁴⁷⁾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

45) 위의 책, 435.

46) 위의 책.

47) 일상의 노동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는 테일러의 ‘일상의 긍정’의 핵심적 내용이며, 이러한 노동의 신성화는 루터와 칼뱅을 기점으로 청교도를 포함하여 개신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Scott Waalkes, “Rethinking Work as Vocation: From Protestant Advice to Gospel Corrective,” *Christian Scholar’s Review* 44/2(2015),

이 수행하는 고유하게 종교적인 행위나 그들이 독보적으로 추구하는 독신만이 영적이거나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평신들이 수행하는 생산적인 노동과 가정생활의 영위도 이제 영적 의미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에서 세속의 영역과 그 영역에서의 일상적 삶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거기에서도 신적 현존과 성스러움을 경험하고 또 신적 영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직자의 삶에 헌신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노동 혹은 세속적 직업을 통해서도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소명론의 형성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⁴⁸⁾ 더욱이 ‘일상적 삶의 불가결한 신성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위계의 부정과 개별 신자의 소명 긍정을 넘어서서 “사회적 카스트라는 개념과 불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테일러는 지적한다.⁴⁹⁾

3) ‘일상의 긍정’ 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함의 진술

결혼은 기본적으로 세속적 본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독교적’ 가정의 가치를 드높임으로써 루터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세속적 의미와 기독교적인 ‘거룩한’ 의미를 융합한다. 한편으로 세속적 본성을 강조하면서 결혼과 가정을 일상의 맥락에 위치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결혼의 거룩한 의미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면서 결혼의 신학적 의미를 세속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다. 그리하여 결혼과 가정은 루터식(式) 일상에 대한 신학적 긍정의 중요한 터전이 된다. 또한 루터에게 노동의 현장에 대한 신학적 해석 역시 일상의 신학 논의를 위한 중요한 구체적 주제가 되었다. 특별히 만인제사장론의 맥락에서 노동을 소명의 관점에서 재해

139.

48) Charles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440-41.

49) 위의 책, 441.

석함으로써 중세 기독교가 성스러운 삶의 헌신을 특수한 과업이나 공간에 제한하여 이해하였던 것을 넘어서서 거룩하다고 여겨진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노동을 긍정한다. 이전에 거룩한 의미를 갖지 못하던 과업이나 노동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특별한 의미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일상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향적 해석과 적용을 적확하고 또 유효하게 파악하고 평가한 대표적 학자가 바로 테일러이다. 우리가 본 대로, 테일러는 종교개혁이 결혼과 노동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존재의 충만성을 체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견지한 점을 들어 종교개혁을 높이 평가한다. 성의 체험을 독신과 같은 특수한 삶의 방식이나 수도원과 같은 구별된 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일상의 행위와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삶의 신성화 혹은 성의 세속화를 추구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일러 역시 결혼과 노동의 현장을 일상의 긍정의 핵심적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4. 세속 영역에 대한 신학적 긍정

1) 루터의 세속 영역과 권위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

루터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를 구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속 정부의 신적 기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의 세속 정부와 마찬가지로, 세속 정부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정치사회 체제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인식이다. “이러한 형벌적인 법적 통치(penal law)는 이 세계의 시작으로부터 존재했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살해했을 때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한 일을 금지시켰고 칼을 쓰는 것을 막아 그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셨던 것이다(창 4:14 이하). 만일 살인자들이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담으로부터 보고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러한 공포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⁵⁰⁾ 여기서 우리는 세속 정부가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인간과 인간 공동체가 ‘생명 보존’과 같은 기본적인 생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이 오직 영적 정부에 속한 사람들 곧 참된 신자들로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다른 정부를 세우실 뜻을 가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루터는 참된 신자가 아닌 이들이 다수를 이루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공동체가 보존·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고 강조한다.⁵¹⁾ 이런 맥락에서 세속 정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세속 권위를 통해 기본적인 법적 체제적 질서를 정립하고 악행과 범법을 예방·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섭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말이다.⁵²⁾

세속 정부 혹은 세속 영역은 비신자들 뿐 아니라 신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세속 정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수혜자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므로 세속 정부는 그 운영에 있어서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공통으로(혹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식론적 행위론적 기반을 상정한다. 앞에서 살핀 대로,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이 이성의 지위와 역할이다. 루터에 따르면, 이성(은 모든 법들 중의 법 곧 가장 중요한 법의 지위를 확보하며 세속 정부 안에서 법적 제도적 체제와 질서를 형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 인식론적 규범적 토대로 삼아

50) Luther,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366.

51) 위의 글, 370.

52) 위의 글.

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며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상적 삶을 규율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이다. 요컨대, 신자와 비신자가 공히 생존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세속 정부의 기원은 신적 위임에 있으며 그 위임의 정치사회적 법적 제도적 실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이성이라는 것이다.

루터의 ‘두 정부’론은 두 정부 사이의 협력과 일치 보다는 구분에 좀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극단적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호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한다. 한편으로 세속 정부는 영적 정부가 수행해야 할 복음적 영적 사명의 실행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영적 정부는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조언이다. 세속 영역 속에서 참된 신자들은 이웃 사랑의 동기로 공적 공동체에 봉사하며 공공선 증진을 위해 비신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⁵³⁾ 따라서 루터는 세속 정부의 신적 기원과 세속 영역에서의 신자들의 공적 책무를 역설함으로써, 일상의 삶의 터전과 그 곳에서의 일상적 생활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⁵⁴⁾

2) 테일러의 세속 권위에 대한 신학적 논증

테일러는 서구 사회는 16세기를 기점으로 ‘주술화된 세계’에서 ‘탈주술화된 세계’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 전환의 중요한 한 계기는 바로 종교개혁이다.⁵⁵⁾ 종교적 관점에서 주술화된 세계의 주된 특

53) 위의 글, 372-73.

54) 이창호, “루터와 ‘일상의 신학’ 모색,” 86-87.

55) 만(Jason A. Mahn)은 루터와 칼뱅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이 신앙의 내면화(혹은 주관화)를 강화하면서, 그것과 상응하여 외적 세계에 대한 탈주술화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징은 성과 속의 엄격한 구분이다. 시공간과 행위 방식에 있어 이 둘은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것인데, 성은 예배당과 같은 구별된 공간, 제의와 같은 두드러지게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리고 제의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수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행위 안에 신은 현존하며, 이 현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성스러움(혹은 신적인 것)을 체험한다. 이와 대비적으로, 속은 이러한 신적 현존과 성스러움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며, ‘속’의 시공간에서 사람들은 성스러움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술화된 세계에서 신의 현존은 교회와 같이 전형적으로 성에 속하는 영역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의 현존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신이 이 공동체 안에도 현존하기에 그에 따라 높은 사회적 위상을 부여 받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랑스 왕국을 그 대표적 보기를 제시하는데, 에른스트 칸토로비치는 이를 신비체로 명명했다는 점을 테일러는 밝힌다. 이 왕국에서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과 불멸의 몸을 대표하는 두 평면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었다.”⁵⁶⁾

탈주술화가 진전되면서, 개신교 사회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세계관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테일러는 지적한다. 주술화된 세계에서 뉴턴의 물리학적 우주관이 반영된 세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해, 뉴턴의 우주는 신의 설계에 따라 형성되고 또 그 설계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이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 이해의 틀 안에서 이 우주 안에 ‘고차원적’

는 점을 강조한다. Jason A. Mahn, “Reforming Formation: The Practices of Protestantism in a Secular Ag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0/5(2013), 307.

56) Charles Taylor, *Varieties of Religion Today*, 송재룡 역, 『현대 종교의 다양성』 (서울: 문예출판사, 2015), 84.

의미 곧 성스러움이나 신적 초월과 연관된 의미가 드러나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테일러는 뉴턴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주는 여전히 신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밝힌다. “그 증거는 우주의 설계와 아름다움, 규칙성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며, 우주가 신의 피조물을 행복으로 이끄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특히 모든 피조물의 정점에 선 인간이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⁵⁷⁾ 이 같은 세계관의 전환은 세계의 탈주술화와 긴밀히 연관되는데, 이제 신은 ‘성’의 시공간에만 배타적으로 현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설계에 따라 존재하고 작동하는 세계 안에도 현존하며 신은 그 설계를 통해 신적 다스림을 강력하게 실현해 가고 있다는 신념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신이 주술화된 우주(혹은 세계)와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거나 이 둘의 관계를 단절의 관념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한편, 신을 탈주술화된 세계의 설계자로 선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자 한다.⁵⁸⁾

우주론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세계관 전환은 정치사회에 대한 관점의 전환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테일러는 평가한다. 앞에서 언급한 ‘신비체’로서의 왕국의 정치지도자인 왕은 땅에 속한 몸과 불멸의 몸을 모두 보유한 존재로 성과 속 양 쪽에 정치사회적 입지를 설정하고 이 양자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정치사회 영역 안에서의 신의 현존의 매개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왕에게 성스러움과 연관된 존재론적 행위론적 정체성 보유는 필연적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그렇듯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의 현존은 신의 설계의 구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의 설계

57) 위의 책, 85.

58)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90-99, 221-34.

곧 인간 공동체 안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신의 계획이나 의도를 존중하고 구현함으로써 신의 현존과 '성'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신의 설계는 '도덕 질서의 관념'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관념의 틀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 관념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창조주에 의해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진실을 존중하고 준수하려고 한다.⁵⁹⁾ 테일러는 종교적 의미와 정치사회적 공동체의 연계를 '신新뒤르케임적'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것의 반제(反題)는 '바로크적' 가톨릭 사회의 '구舊뒤르케임적' 양식으로, 이 양식에 따르면 정치사회 공동체는 신적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실체적으로 의존하며 존재·작용한다는 관념을 내포한다. 이러한 관념은 탈주술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약화되고 '신뒤르케임적' 양식으로 전환되는데, 테일러에 따르면 이 양식의 작용하는 사회에서도 신의 설계에 대한 존중과 구현을 통해 신의 현존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⁶⁰⁾ 특별히 테일러는 이러한 설계는 "우리 사회를 식별하는 일반적 설명에 동의하도록 하며, 그것은 곧 사회의 '정치적 정체성'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⁶¹⁾

3) '일상의 긍정' 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함의 진술

루터는 세속 정부와 그것의 정치적 작용의 신적 기원을 이론화함으로써 세속 영역에서 정치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영위하는 정치적 삶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의 긍정은 정치 영역과 행위를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루터의 세속 정부에 대한 긍정

59) Charles Taylor, 송재룡 역, 『현대 종교의 다양성』, 86.

60) 위의 책, 95-96.

61) 위의 책, 96.

은 테일러가 신뒤르캬적 양식으로 서술한 세계관의 전환에서도 포착된다. 정치적 실존과 행위를 직접적으로 신의 현존과 기능에 연결시키는 구뒤르캬적 양식과 대비적으로, 신뒤르캬적 틀 안에서 정치적 삶이란 기본적으로 탈주술화를 전제하며, 신자와 비신자를 포괄하여 모든 인간이 정치적 존재로서 수행하는 정치적 행위들은 신의 원초적 설계의 존중과 구현이며 이를 통해 신의 현존이 이루어진다고 인식을 내포한다.

IV. 나가는 말

기독교 신학이 ‘일상적 삶과 그 삶의 터전’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거룩한 삶의 일상적 기반을 성과 속을 포괄하여 확장하는 데 있어 루터의 신학과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테일러의 평가를 긍정하면서, 필자는 이른바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논거들을 루터와 테일러의 사상에서 찾고 그 논거들을 진술하였다. 이제 이 논거들에 입각하여 몇 가지 신학적 윤리적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들을 통해 한국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신앙과 실천이 이원론적 신앙, 창조와 구원 신앙의 균형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 뿐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공적으로 책임적인 삶을 일구어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정당화에 있어서 이성의 기능과 지위 강조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세속화의 관점에서의 일상의 긍정은 개별 신자의 자율적 선택과 주체성의 인정과 연관되며, 이러한 인정은 그 신자가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시공간적 토대로서의 일상에 대한 신학적 긍정으로 이어진다. 이 일상의 시공간에는 신자와 비신자를 포괄하는 주체들이 공존한다. 이들이 정치사회적 공동체의 삶을 일구어 감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보유하는 ‘이성’의 기능과 지위에 대한 보편적

긍정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의 삶을 정치사회적으로 형성해 가는데 있어 보편적 이성의 작용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내적(歷史內的) 섭리가 갖는 신학적 함의는 일상의 긍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국 교회는 이 점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는 세속 정부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루터의 사상과 연계하여,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일상의 영역으로서의 세속 영역과 그 안에서의 삶이 신학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신념에 이른다 고 볼 때, 더더욱 한국 교회의 신앙 개선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과 가정, 노동의 현장과 사회적 직무 등 주된 사회적 삶의 자리에 대한 통전적인 신학적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본 대로, 결혼과 가정을 세속적 질서로 보는 루터의 이해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사회적 자리를 신학적 의미를 전혀 혹은 충분히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세속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속 영역에서 영위하는 다양한 삶의 현장들을 성과 속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묶어 본다는 의미에서 통전적인 신학적 정당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루터의 만인제사장론도 성과 속에 대한 통전적인 신학적 정당화를 뚜렷이 반영한다. 이 이론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한 직무 수행 뿐 아니라 교회 밖 세속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직무들 곧 노동, 직업, 공적 의무 등도 엄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의 구현임을 역설한다. 그리하여 교회 안팎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적 직무들은 교회 공동체와 교회 밖 공적 공동체들의 공공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그 직무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는 이른바 구별된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교회 공동체 뿐 아니라 결혼과 노동

의 현장도 ‘기독교적 존재의 충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영역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또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와 정치 영역 사이의 구분됨과 연속성을 적절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 신학과 윤리의 관점에서 루터의 중요한 기여는 세속 정부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작용을 신적 기원과 위임에 결부시킴으로써 한편으로 종교적 권위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정치 행위의 여지를 확보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공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영위하는 정치적 삶과 행위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테일러의 개념으로, 교회의 권위와 정치권력을 신의 현존과 기능을 토대로 종합하고자 하는 구뮈르캄적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정치적 삶과 행위의 주술화를 배격하는 동시에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정치의 행위들을 신의 설계의 구현으로 보는 신뮈르캄적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방향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경계하는 동시에 연속성이나 일치에 대한 배타적 추구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연속성이나 일치의 강조와 추구가 교회의 정치권력화와 신앙의 삶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적절한 구분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창호. “루터와 ‘일상의 신학’ 모색.” 『성암사상연구』 제13집(2016), 82-91.
- _____. “종교개혁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루터와 칼뱅의 남녀관계성과 결혼 및 성적 결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9집(2017), 161-92.
- 정홍렬. “루터의 만민제사장직.” ACTS 『신학과 선교』 제9집(2005), 178-93.
- 최현중. “세속화.” 김성건 외. 『21세기 종교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2013.
- Berger, Peter L. *The Sacred Canopy*.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75.
- Forell, George W. “Luther’s Conception of ‘Natural Orders.’” *Lutheran Church Quarterly* 18(1945): 160-77.
- Heineken, Martin J. “Luther and the Orders of Creation in Relation to a Doctrine of Work and Vocation.” *The Lutheran Quarterly* 4/4(1952): 393-414
- Hendrix, Scott. “Luther on Marriage.” *Lutheran Quarterly* 14/3(2000): 335-50.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46. Edited by Jaroslav Jan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68.
- _____. *Luther’s Works* 13. Edited by Jaroslav Jan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6.
- _____. *Luther’s Works* 45. Edited by Jaroslav Jan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68.
- _____.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Dillenberger, John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 Mahn, Jason A. “Reforming Formation: The Practices of Protestantism in a Secular Ag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0/5(2013): 305-318
- Schweiker, William. “Radical Interpretation and Moral Responsibility: A Proposal for Theological Ethics.” *The Journal of Religion* 73/4(1993): 613-37.

Taylor, Charles. *A Secular Ag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_____.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권기돈 · 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서울: 새물결, 2015.

_____. *Varieties of Religion Today*. 송재룡 역. 『현대 종교의 다양성』. 서울: 문예출판사, 2015.

Waalkes, Scott. "Rethinking Work as Vocation: From Protestant Advice to Gospel Corrective," *Christian Scholar's Review* 44/2(2015): 135-153.

논문투고일: 2018년 2월 28일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06일

• 국 문 초 록 •

테일러(Charles Taylor)는 루터와 칼뱅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전통이 '일상'에 대한 신학적 긍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특수한 계시나 신비로운 임재 등의 신적 자기 계시의 방식, 신적 자기 계시와 그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으로서의 신앙 공동체 등의 관점에서의 종교적 구별됨이나 배타성을 극복하고 평범한 삶의 시간과 영역 안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확장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인 것이다. 다시 말해, 테일러는 일상의 삶과 그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인간의 역사적 삶의 의미를 세속의 시공간으로 확장하여 거룩한 삶의 일상적 기반을 성과 속을 포괄하여 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테일러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루터와 테일러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그 신학적 철학적 윤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테일러의 '일상의 긍정'에 대한 기본 이해 고찰로 시작하여, 일상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초점으로 하는 신앙론, 일상에 대한 창조론적 이성중심적 긍정, 일상의 긍정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가정과 노동, 세속 영역에 대한 신학적 긍정 등의 논점을 주로 다룰 것이다. 또한 신학적 윤리적 제안을 할 것인데, 이 제안을 통해 한국 기독교회의 신자들의 신앙과 실천이 성과 속을 포괄적으로 존중하며 '일상의 영역'(혹은 세속 영역)에서도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찰스 테일러, 마르틴 루터, 일상의 긍정, 일상의 노동, 만민제사장설
